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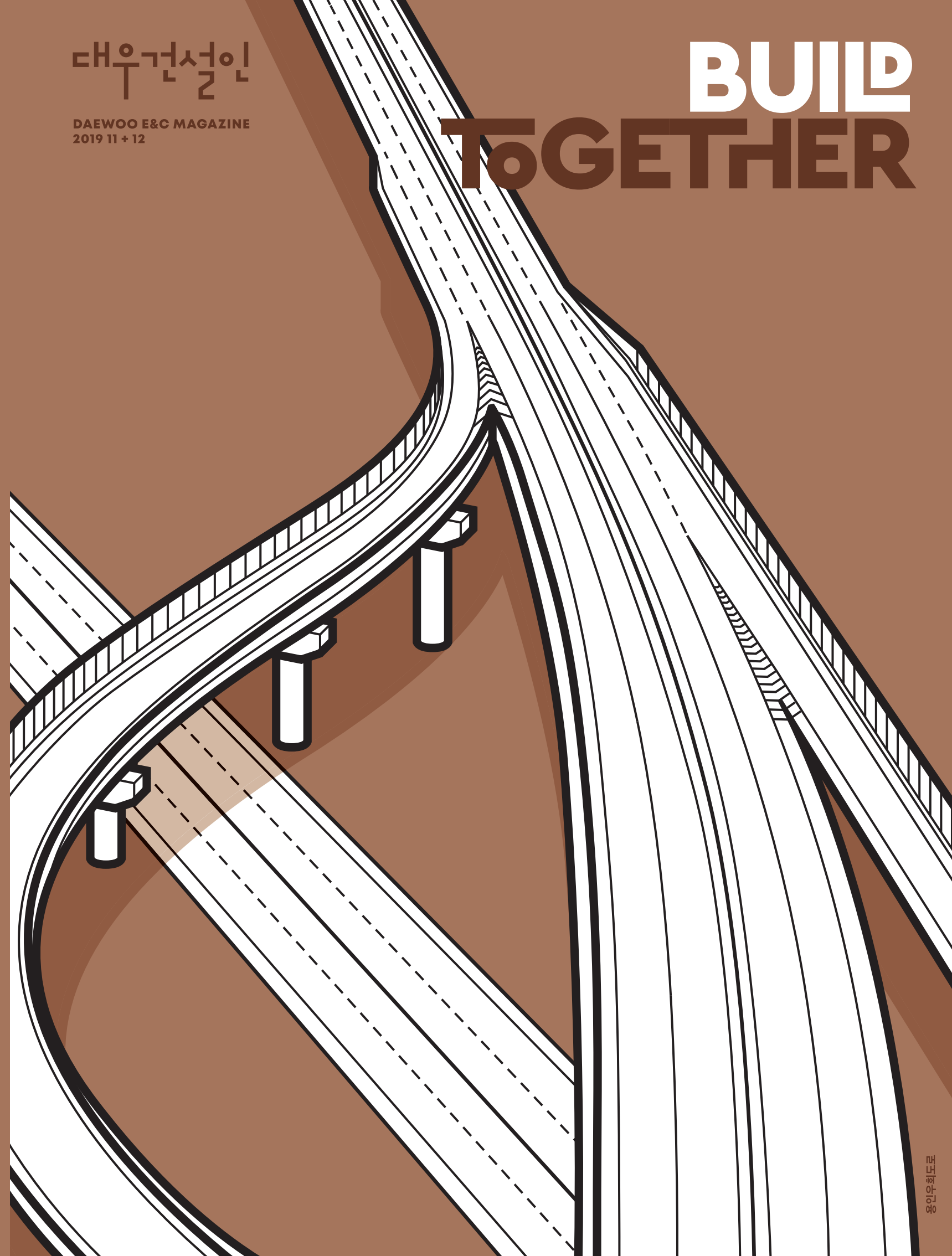
대우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19 11 + 12

**BUILD
TOGETHER**



www.daewooenc.com



표지 컬러링 이벤트

지난 9+10월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하남 테크노밸리U1센터가 알록달록 색다른 옷을 입었네요.
이번 11+12월호의 주인공은 용인우회도로 현장입니다. 산을 뚫어 3개의 터널을 만들고,
21개의 교량을 세워 도로를 잇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랍니다.
표지에 나만의 색을 입혀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현장 송영수 과장	동탄역푸르지오시티 현장 최민철 차장	해외법무팀 신지연 변호사
국내토목CM팀 이수용 차장	쿠웨이트AL-ZOUR REFINERY 현장 조형진 과장	수성레이크푸르지오 현장 김상경 부장
파주포천고속도로3공구 현장 이진석 과장	장보고3시설 현장 오승준 과장	주택건축사업팀 이종영 과장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컬러링
이벤트]라고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DAEWOO E&C MAGAZINE
2019 11 + 12

대우건설인



6



22



8



46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사보 편집실)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인쇄 금강인쇄

2	창립기념사
	46주년 창립기념사
4	스페셜리포트
	대우건설의 46
6	창립기념식
	지금처럼 함께, 앞으로도 충실하게
8	창립기념콘서트
	11월의 반가운 선물
10	테마
	몰입의 힘
12	테마 story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선택하고 몰입하라
14	테마 poll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주문, 몰입력
18	테마 talk
	몰입, 그것이 문제로다
22	현장에서 찾은 지혜
	협력의 토대에서 함께 길을 열다
	용인우회도로 현장
28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애뒀한 당신에게
30	글로벌 TMI
	싱가포르 TMI
32	트렌드 인사이트
	건설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다
	BIM 건설정보 모델링
36	티타임 도시 여행
	하얀 설원 녹색 영혼, 그린란드
40	취미 레슨
	영상 콘텐츠, 나도 만들어볼까?
42	직장의 神
	핵심만 쏙쏙! 2019 연말정산 함께 보기
44	출근길 인문학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려라
	디지털 디톡스

	대우건설인 +
46	서울숲에서 꽃 피운 푸르지오 장미
48	푸르지오비씨 어린이집
50	모든 것이 새로워진 푸르지오
	새롭게 단장한 SNS를 소개합니다
52	함께하는 2019 기업문화 캠페인
56	대우건설 뉴스
	2019년 11+12월 대우건설 뉴스
60	독자 편지

지난 46년을 디딤돌 삼아

함께 BUILD TOGETHER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우건설이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국내외에서 회사를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대우건설을 향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올 한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건설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위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출 제한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해외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우건설은 연내 약 24,000세대의 주택공급을 전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우수한 수행력을 통한 발주처 신뢰 관계 구축으로 추가공사 수의계약을 연이어 체결해 내는 등 작년 이맘때 모두가 걱정했던 매출 감소에 따른 역성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왔으며, 그 결과 금년도 경영계획 대부분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덕분으로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재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대우건설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혹은 오히려 뒤떨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여정에 종착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각고의 노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는 작년 뉴비전과 중장기 전략목표를 수립,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뉴비전과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설 새 없이 달려 온 지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국내 업체 최초로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공사에서 원청사 파트너의 일원으로 수주를 사실상 확정하였으며, 이라크 등 거점지역 내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단독으로 추가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푸르지오 브랜드 리뉴얼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주거 공간 브랜드로 재탄생시켰으며, 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장기 임대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기존 당사가 수행해 오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스펙트럼 확대를 위한 AMC 설립 등 기존의 계획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며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지금의 새로운 사옥 이전과 함께 업무환경뿐만 아니라 회사 내 주요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영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우건설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행 역량 고도화, 마케팅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연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영 인프라 혁신 등 1년 전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외친 뉴 비전 달성을 위한 이 네 가지 핵심전략을 지금처럼 충실히 이행하며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 시대에서도 우리 대우건설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Global Top 20를 넘어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기본과 원칙은 변하지 않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우리의 주변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기본이자 원칙인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써 쌓아 올린 회사의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가 이제 막 하나둘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대우건설은 혁신과 도전의 DNA로 재무장하여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과거의 성공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마지막까지 전력투구하여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2020년은 제2의 대우건설 도약기를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주)대우건설

사장 김 형



Years Anniversary

대우건설의 46

46은 누군가에게는 도전으로 가득 채운 열정의 햇수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어 온 햇수다. 대우건설의 46주년을 맞이해 46의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디딤돌 대우건설의 46년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 안에서도 곳곳이 국내 최고 건설사로서 성장한 대우건설. 1973년 12명의 직원이 모여 시작한 대우건설은 업계 최초 건설기술연구소 설립, 해외건설 40억 불 탑 수상(1984년), 7년 연속 주택공급 실적 1위(2016) 등의 쾌거를 이어왔다. 대우건설의 46년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며 국민의 삶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다. 그동안의 46년을 디딤돌 삼아 뉴 비전 ‘Build Together’를 이뤄낼 대우건설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전 후방 밸류 체인 확장을 위해 신규시장 진출 등의 새로운 사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드론 측량기술 등을 포함한 스마트 건설 추진을 통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도전의 역사

46년 전 미국이 처음 쏘아 올린 우주정거장

인류의 성공은 기술이 아닌 정신, 즉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으로 이뤄져 왔다. 우주 탐사 역시 마찬가지. 1973년 발사된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그중 하나다. 스카이랩이 우주 한가운데서 지구 2,000바퀴를 도는 동안 그 안에서는 79가지 실험이 진행됐고, 인간이 우주에서 생활할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와 에너지 소모량, 수분 배출량 등이 기록됐다. 스카이랩은 171일 만에 대기권으로 추락했지만 인간이 우주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가능성을 확인하며 우주정거장 시대의 시작을 열었다. 이를 디딤돌 삼아 NASA의 지휘 아래 제작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20년부터 일반인 방문을 허가할 예정이다. 46년 전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했던 스카이랩은 인류가 만들 또 다른 성공의 시작점이 됐다.

일상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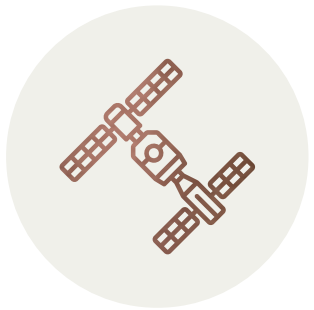
올해 46살이 된 만 원 이야기

가로 148mm, 세로 68mm의 손바닥만 한 초록색 지폐. 1만 원 권 지폐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70년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1973년 6월에 첫 모습을 선보였으니 올해로 마흔여섯 살인 셈. 라면 한 개가 20원이고 40kg 쌀 한 가마니가 3천 원이며 9급 공무원의 봉급이 2~3만 원이던 시절이다. 만 원은 이후로도 36년간 우리나라의 최고액권 자리를 차지했다. 그사이 만 원의 금액 가치는 끊임없이 달라졌다. 옷 한 벌에서 피자 한 판으로 다시 갈비탕 한 그릇으로. 하지만 천 원의 금액 가치가 무색해진 요즘, 만 원짜리 지폐만큼 지금의 전 세대를 하나로 엮으며 추억과 감상을 전할 수 있는 화폐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웃고 울리며 함께해 온 이 ‘배춧잎’에는 우리의 삶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함께의 미덕

마음과 마음 사이 46cm

인간관계의 다양한 거리를 연구한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그는 팔을 뻗어 손이 닿을 정도의 범위인 46cm를 ‘개인적 공간’이라 정의했다. 대화는 물론 시각, 후각, 촉각으로 소통하며 친밀한 마음을 주고받는 거리다. 이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계한다는 것. 회사에서 하루의 1/3을 머무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이 개인적 거리를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서로 침범하게 된다. 우리는 타인의 46cm를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그 사이 어딘가에 소통의 공공장소를 두어 서로가 즐겁게 공존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마음을 공유하는 공간이 46cm보다 가까워질 때,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또 하나의 우정을 얻게 된다.



지금처럼 함께, 앞으로도 충실하게

대우건설이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이했다.

임직원이 한 데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며
앞으로의 결의를 다졌다.



지난 11월 1일, 창립 4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경영진 및 집행임원과 임직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사가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기까지 임직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그들의 노력을 알리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임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대우건설 최고의 인재에게 수여 하는 E&C 챔피언상을 시작으로 장기 근속자에게 수여 하는 근속상, 현장 전문직원 중 회사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 수여 하는 우수사원상, 높은 수주 성과를 창출한 수주관련 사업팀에게 수여 하는 수주공로상이 차례로 주어졌다. 수상이 끝난 뒤 김형 사장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 임직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1년 전 우리가 함께 외친 새로운 비전 BUILD TOGETHER를 위해 지금처럼 충실하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회사가 이루어낸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김형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직원노사협의회 대표가 함께 창립 46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떡을 자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2019 수상자 명단

E&C Champion

부문	성명	직급	소속
시공/CM	박철호	부장	이라크알포방파제PJ(현장)
	홍승국	부장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 현장
	이민재	부장	나이지리아 INDORAMA FERTILIZER II PJ(현장)
영업	김문수	부장	개발사업1팀
관리/지원	김태진	부장	회계팀
연구/기술	문원태	부장	주택건축기술팀

수주공로상

부문	수상팀	팀장
수주공로상 최우수	도시정비사업2팀	신만호 부장
	플랜트사업1팀	이동우 부장
수주공로상 우수	토목사업팀	김정훈 부장
	주택건축사업2팀	최덕신 부장

11월의 반가운 선물

푸르지오 아트홀에 친숙한
음악선율이 울려 퍼졌다.
대우건설의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열린
CINEMA&MUSICAL 콘서트다.



영화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반가움’ 아닐까. 한번쯤 들어본 듯한 멜로디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음악들. 이번 창립 46주년 콘서트의 주제는 CINEMA&MUSICAL이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정상훈, 비올라 앙상블인 올라비올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팀 더 뮤즈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음악들로 공연을 꾸렸다. 뮤지컬과 연극은 물론 재치있는 입담으로 TV를 오가는 정상훈이 아트홀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자, 뒤이어 올라비올라가 무대에 올라 비올라를 통해 클래식 매력의 전파하며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배우 홍지민과 더 뮤즈의 힘찬 공연에는 임직원 여럿이 어깨를 들썩였다. 배우들은 무대에서 내려와 임직원들과 가까이 눈을 맞추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을 직접 무대 위로 초대해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임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멋진 공연이었다.





몰입의 힘

무언가에 깊이 빠져 정신을 차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 있는가. 목표와 행동 그리고 머리 속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를 몰입이라 부른다. 진정한 몰입은 깊은 의식 속에 숨겨진 해답을 찾고, 내 안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한다. 사람마다 이룰 수 있는 몰입의 질과 양이 다르지만 각자의 노력에 따라 그 깊이와 빈도를 더할 수 있다. 이번 11+12월호에서는 자신이 원할 때마다 몰입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공유해보고 몰입의 힘과 그 방법을 알아본다. 지난 46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길을 열어낼 대우건설. 도전 의지와 수행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일상의 행복을 높이고 가치를 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원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12	테마 story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선택하고 몰입하라
14	테마 poll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주문, 몰입력
18	테마 talk	몰입, 그것이 문제로다

build together
#focus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선택하고 몰입하라

일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슈퍼맨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모든 행동에는 비용과
대가가 따른다. 업무 능력을 높이는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은 ‘선택’ 그리고
‘몰입’이다.

글. 류량도(도서<일문일답> 저자, 성과코칭 대표)

Warren
Edward
Buffett

워런 버핏 “5개 빼고 다 버려!”

워런 버핏의 전용기를 10년간 몰았던 조종사 마이클 플린트가 버핏에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플린트에게 가까운 미래 혹은 일생에 거쳐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25개의 목록 중 5개를 다시 선택하게 한 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며 함께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인 계획안이 완성되자 버핏은 나머지 20개의 목표를 지워버리라고 말했다. 목표로 세운 5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전까지 절대로 거들떠보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대부분의 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아주 작은 목표 역시 항상 염두에 둔다. 최대한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목표에 집중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Bernard
Werber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임오경 “몰입의 시작은 체력”

핸드볼 부문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임오경 선수. 그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소의 자기관리, 특히 체력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리 좋은 기량과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후반전 30분을 뒤흔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철저한 임오경 선수는 탄산음료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몸에 안 좋다는 행동 역시 일절 하지 않는다. 자신의 소소한 행동이 체력으로, 몰입력으로, 경기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몰입력을 위한 훈련은 경기장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경기장 밖의 일상 생활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다. 이것은 순간 몰입력이 필요한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하루 4시간, 스포츠 경기를 하듯”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에서만 1200만부 이상의 소설이 판매될 정도로 성공한 프랑스 소설가다. 그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만 글을 쓴다. 16살 때부터 몸에 새긴 습관이다. 그는 “규칙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에 제한이 있는 스포츠 경기와 같다. 오후에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더욱더 글을 쓰고 싶어진다는 것도 장점”이라 말했다. 그는 오전 외의 시간에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글을 쓰지 않는다. 수도꼭지를 꼭 잠그듯 작업을 멈춘다. 그가 글을 쓰는 오전 4시간은 하루 동안 꼭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틀어 생각을 쏟아내는 귀중한 시간이다. 일하는 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글을 쓰는 몰입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O-Kyung
Lim

이나모리 가즈오 “몰입도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그의 첫 직장은 도산 직전의 한 세라믹 생산업체였다. 마땅한 이직처를 찾지 못한 그는 눈 딱 감고 하루만 일에 몰입해보자고 다짐한다. 일에 푹 빠져 하루를 보낸 그는 몰입이 주는 성취감을 느꼈다. 이후 새로운 재료 합성에 성공하고 대량생산까지 이루어 내며 회사를 살려낸 1등 공신으로 성장했다. 몰입도가 높은 구성원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증명됐다. 갤럽이 23,9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몰입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이직률은 30~50%의 차이를 보였다. 몰입도가 높은 구성원의 생산성이 26%가량 높다는 사실도 미국 근로 현황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재미는 없지만 회사 혹은 팀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마주한다. 이때 무턱대고 고개를 젓기보다는, 작은 과정에서의 몰입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어떨까.

Kazuo
Inam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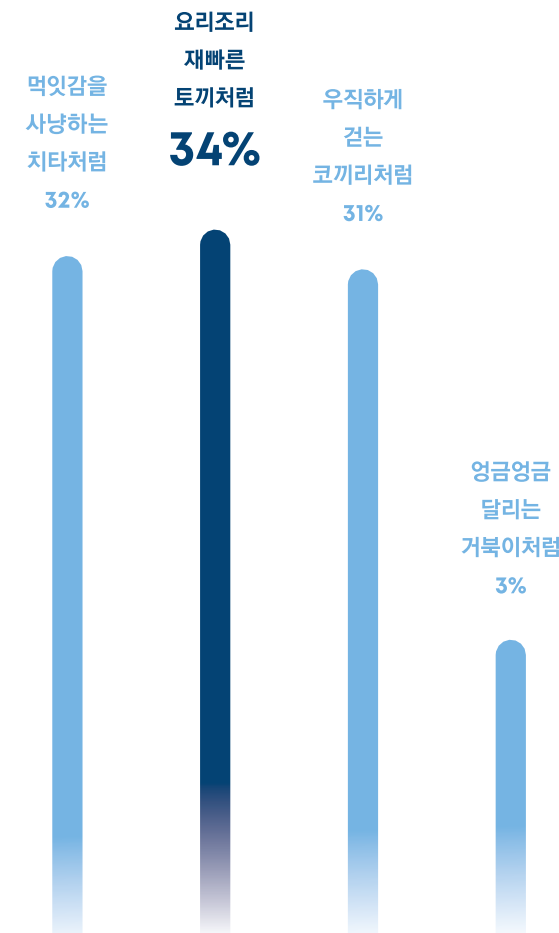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주문, 몰입력

누구나 몸과 두뇌 그리고 마음속에 거인 하나를 품고 산다. 거인의 정체는 바로 잠재력이다. 이 거인은 오직 '몰입'을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다. 대우건설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낼 '몰입'에 대해 물었다.



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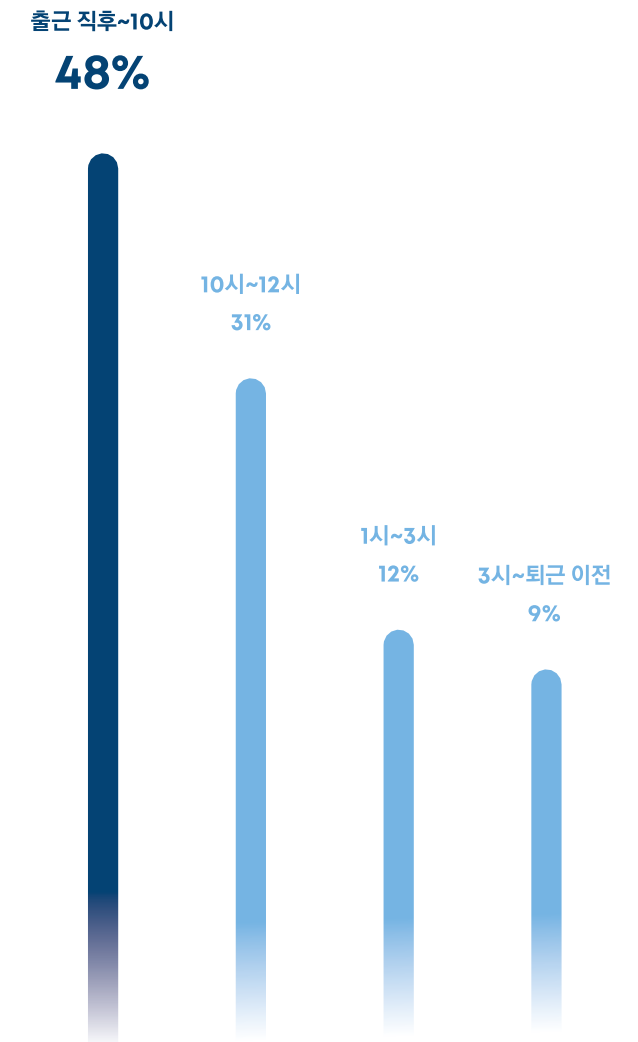
스스로 평가해보는
나의 2019년 업무 몰입 태도는?



자가평가만큼 자극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 설문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나의 2019년 업무 몰입도'를 물었다. 몰입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으나, 몰입도가 높을수록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다. 스스로 '거북이 같은 한 해를 보냈다' 생각해도 괜찮다.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는 곧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

Q2

집중이 가장 잘 되는
나의 '업무 골든타임'은?



사람마다 생체리듬이 제각각이듯, 유독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대가 다르기 마련이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하루 중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은 출근 직후부터 10시 사이'라 답했다. 직장인이라면 알 것이다. 우리의 집중력은 '빛과 소금'처럼 귀하다는 것을. 나의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옆자리 동료의 몰입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배려하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Q3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설문 결과 '불시에 일어나는 잦은 회의'가 응답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끊임없는 후배의 보고와 상사의 질문', '동료의 비협조적인 태도', '동료의 과도한 사담'이 뒤를 이었다.

'타 부서 및 협력업체의 긴급 업무 요청', '전화 문의', '층 내 소음', '잦은 배고픔', '특별히 없음'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회의실로 따라와"
돈금없고 끝없이
발생하는 회의
34%

커피, 간식 등의
음식 섭취
27%

스트레칭, 산책 등의
틈새 운동
12%

주변 정리정돈
12%

기타(흡연)
3%

"어떻게 생각해?" 끊임없는
후배의 보고 및 상사의 질문

21%

"저 바쁜데요?"
동료의 비협조적인 태도

19%

"내가 어제 말이야"
동료의 과도한 사담

13%

기타

13%

업무 체크리스트 및
스케줄러 정리

46%

Q4

호트러지는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나만의 꿀팁은?

업무 중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집중력을 올리는 필수조건이다.

스케줄러 정리, 간식 섭취, 주변 정리정돈, 틈새 운동 이외에도 '업무를 바꾸어 기분 전환하기',

'ASMR 또는 백색소음 듣기' 등을 추천한다. '멀티태스킹'과 '스마트폰 앱 들여다보기'는

집중을 더욱 방해하는 습관이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Q5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팀에 가장 필요한 문화는?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팀 차원에서 조성해야 할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50%가 '불필요한 시스템 줄이기'

라고 답했다. 잦은 회의와 보고는 오히려 팀 의욕을 저하하고 개인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상사는 매 회의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드백을 할 때는 핵심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회의 자료를 정확히 숙지하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하직원에게 필요한 태도다.

잦은 회의와 보고,
잡일 등 불필요한
시스템 줄이기
49%

수면과 식사 등
생활패턴 관리

24%

취미 등 업무 이외의
몰입할 거리 만들기

20%

스마트폰
사용량 줄이기

1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량 줄이기

37%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지키기

9%

사적인 용무와
과도한 사담 자제하기

5%

꾸준한 운동 및
체력 관리

45%

Q6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앞으로 하고 싶은 개인적인 노력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는 만성 피로와 집중력 감소, 소화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고 몸이 둔해지는

겨울에는 더욱 체력이 약해지기 쉽다. 플랭크, 스쿼트 등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운동법이다.

남다른 집중력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올릴 뿐만 아니라 두뇌까지 자극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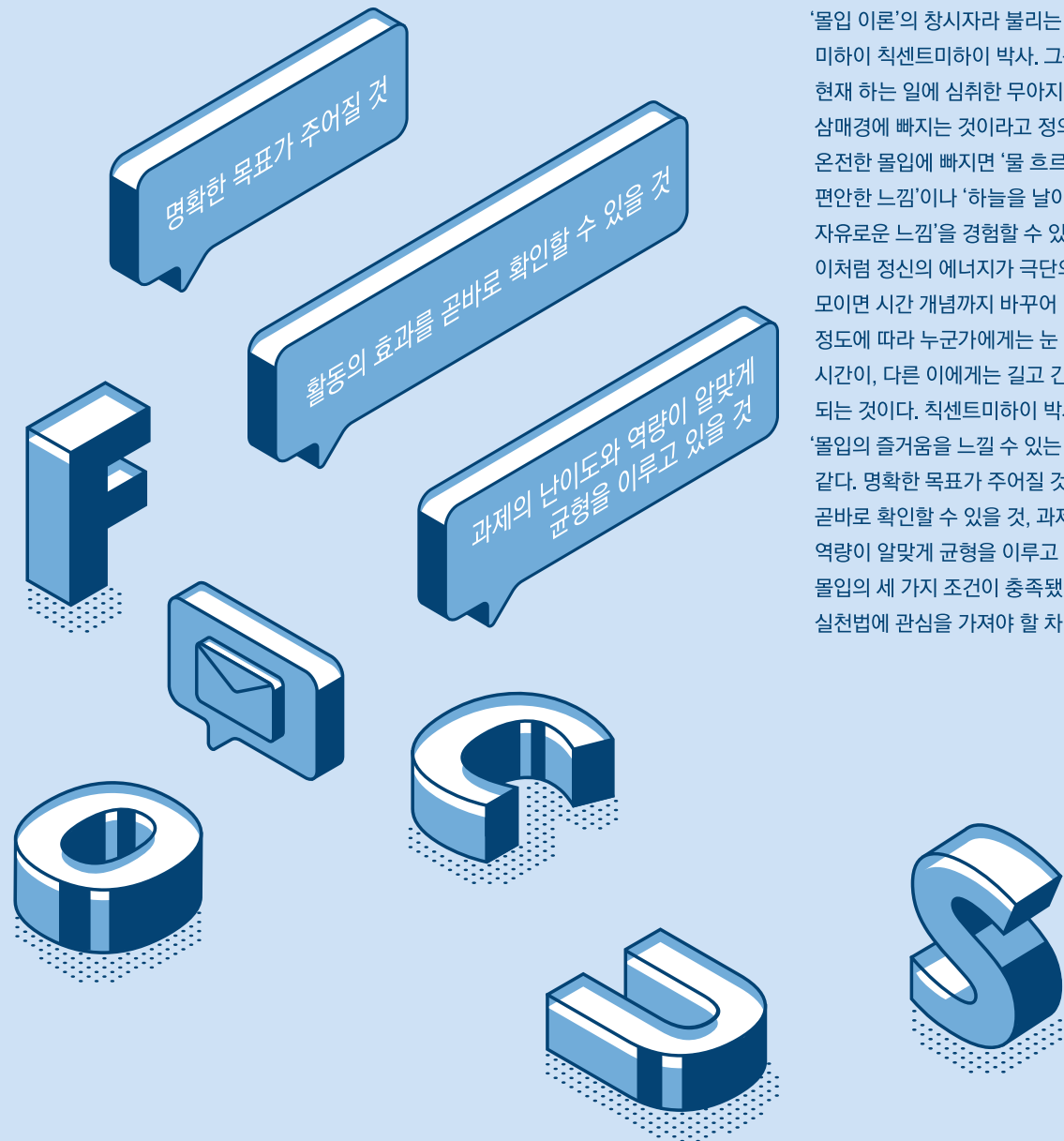
매일 일정 시간 취미활동에 몰입하는 것 역시 집중력 훈련에 도움이 된다.

몰입, 그것이 문제로다

한 직원의 몰입력은 곧 한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개인의 업무 속도와 품질 그리고 사내 분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몰입의 의미를 돌아보고,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실천 방법을 알아본다.
글. 류량도(도서<일문일답> 저자, 성과코칭 대표)

‘몰입의 즐거움’을 부르는 세 가지 조건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 불리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 그는 몰입이란 현재 하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 즉, 삼매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온전한 몰입에 빠지면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나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의 에너지가 극단의 한 방향으로 모이면 시간 개념까지 바꾸어 낸다. 몰입 정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눈 한번 깜짝하는 시간이, 다른 이에게는 길고 긴 지루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칙센트미하이 박사가 말한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명확한 목표가 주어질 것, 활동의 효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과제의 난이도와 역량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몰입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구체적인 실천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차례다.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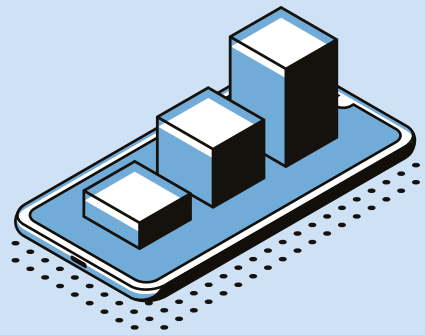
일의 가치 찾기



업무의 가치를 파악하면 열정 온도가 오른다
행위 자체에만 몰두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최대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 몰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다. 이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 업무가 가져올 성과와 일의 가치를 파악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더욱 열정을 갖고 몰입하기 때문이다. 해당 일의 가치를 정의할 때는 업무 성과와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어야 실행 과정에서 의심과 불안이 들지 않는다. ‘성과(成果)’는 어떤 일을 완료했을 때의 ‘최종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일을 통해 얻어낼 결과물의 최종 모습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좋다. 하고 싶은 의욕이 솟아날 것이다.

Step 2

구체화하기



잘 삼은 목표 하나, 열 기준 안 부럽다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면 중요도가 낮거나 성과와 관련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렇다면 목표란 무엇일까. 목표의 한자어는 '눈 목(目)', '표할 표(標)'로 '눈을 통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표할 표(標)'에 '보일 시(示)' 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곧 목표의 핵심이다. 즉, 목표는 기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의 상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낸 '건물의 조감도'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잘 세워진 목표는 전략, 실행 그리고 일에 관련된 결정의 모든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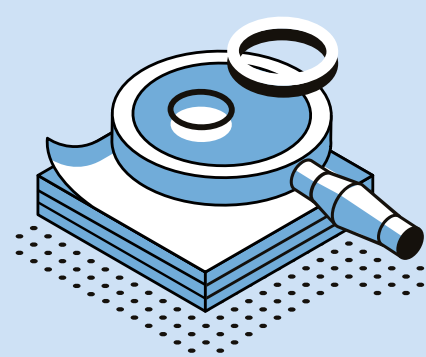
일정 쪼개기



연간에서 일간으로, 거꾸로 세면 보이는 것들
1년에 걸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막연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순간 해야 할 단계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계획의 기본은 '쪼개기'다. 일의 단위를 체감할 수 있는 범위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뒤 역산하여 월간, 주간, 일간 스케줄을 구성하면 된다. 기간별 목표를 설정한 후 부터는 실행 여부를 엑셀 표나 스케줄러에 꼼꼼히 기록해 지표로 삼는 것이 좋다. 주마다 현황을 파악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 할 일을 계획표로 시각화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공의 열쇠다.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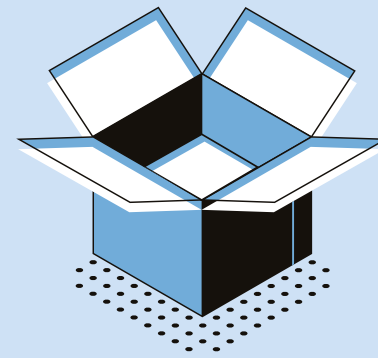
관찰하고 기록하기



나의 업무력, 과연 얼마나 성장한 걸까?

노력은 성과 이외의 또 다른 결실을 맺게 한다. 더욱 향상된 능력과 업무 스킬이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 업무에 깊이 몰입할수록 이 사다리는 더욱 길고 튼튼해지는데, 사다리의 가치는 스스로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나의 여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발전 정도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헤쳐나갈 때마다 지금 내게 부족한 능력을 파악하고 기록해 보도록 한다. 이에 맞추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좋다.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것은 물론 몰입의 동력까지 책임질 것이다. 현재의 업무보다 더 확장된 일을 맡고 싶을 때 상사에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Bonus tip ;



'갑자기, 또, 결과 없는 회의' 안 돼요

회의는 직원들의 몰입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준비를 위한 고민은 물론 회의가 불러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의에서 무언가 결정될 경우, 종종 업무 폭탄이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 회의는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존재다. 회의의 가치는 시간 대비 비용, 참여도, 결과물 즉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은 회의에 앞서 회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프로젝트 관련 몇 번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참여자는 어떻게 선별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는 결과물은 무엇인지 등이다. 회의 성격에 따라 정보 공유와 문제 해결 회의(창조, 의사결정, 조정 등)로 구분한 뒤 단순 정보 공유 회의는 메일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일을 잘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천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몰입이 잘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아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명심하자. 주변 환경은 죄가 없다. 오로지 일하는 방식의 문제다. 일하는 방식을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몰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발판 삼아 더 큰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일을 통한 발전, 이것이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공부이다.



3 개소
터널공
1,255m

4,206 일
공사 기간
2009. 3. 3 — 2020. 10. 31

21 개소 교량
구조물공
2,139m

협력의 토대에서 함께 새 길을 열다 용인우회도로 현장

2009년 첫 스타트를 끊었던 대우건설의
용인우회도로 현장이 이제 길고
길었던 레이스의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씬 없이 달려온 그들,
협력의 토대에서 함께 길을 열어나간
현장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국도 42호선 도로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남동 구간’은 악명 높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번 현장은 많은 용인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염원을 담은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실제로 이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최대 90분에서 10분으로 80분 가량 대폭 단축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물류비용도 연 76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을 뚫어 3개의 터널을 만들고, 21개의 교량을 세워 도로를 잇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물리적으로 지나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용인우회도로 현장은 그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 시공한 프로젝트 가운데 최장기간 현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7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듬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승인받은 후 2009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강산이 한 번 변할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작년 11월 말, 용인 삼가동부터 대촌교차로까지 왕복 4차선 도로가 완공되던 날은 일대의 경사이자 현장 직원들에게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공사팀 전강배 대리 역시 그 순간을 기억한다. “개통 전 도로 시승식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더군요. 또 항상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용인시청 주변 도로가 교통량이 분산되어 한결 원활해진 모습을 직접 보니 무척 뿌듯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본선 전 구간의 개통이 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였다. 그런데 발주처와 용인시의 요청으로 공촌교차로 연결로 등 추가공사를 수의 계약 하면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졌던 것이다. 현장을 총괄하는 이창선 소장은 “대우건설의 시공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추가공사를 수의로 계약할 수 있었다”라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 추가공사는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우회도로에는 방음덕널을 설치해 소음이나 분진으로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협력과 단결로 돌파구를 찾다

10여 년의 공사 시간. 물론 우여곡절이 적지는 않았다. 공무원 신승훈 과장은 그중에서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꼽는다. “공사 착수부터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 보상 예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용지 확보가 절실했지요. 하지만 해당 연차별 최소 용지 보상 예산으로 최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철저한 공정 계획 및 관리를 해 본선 개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지 내에 짓는 신설 우회도로 건설 현장이다 보니 기존 인프라 시설과의 조율도 관건이었다. 대표적으로 용인 에버라인 경전철 차량기지 중심부에 현장 타설 말뚝을 시공하고 그 위에 거대한 강교를 거치하는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에버라인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공사 수행을 위해 우리 공사팀 직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그들과의 신뢰 구축에 다양한 노력을 했지요. 특히 철도 레일 바로 옆에 다수의 L=25M 현장 타설 말뚝을 시공함에 있어서 레일 상에 변위계와 침하계를 설치하여 문제없음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보안시설이다 보니 다수의 감지센서 이설에 대해서도 계획에 맞게 아무런 문제 발생 없이 완료 과정을 거쳐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팀 전강배 대리의 말이다. 그 밖에도 지하매설물로 인해 공사착수에 난항을 겪는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도 어려움의 하나였다.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은 건설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데, 이 역시 현장 직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 신승훈 과장은 특히 2013년이 기억에 남는다. “용인대 진입도로 횡단 교량인 하고개교의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일종인



기존 도심지 내에 21개 교량을 세워서 새로운 길을 잇는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와의 조화와 조율이 관건이었다.



PSC 빔(Prestressed concrete Beam) 거더를 거치하고 태풍의 영향권에 맞닥뜨릴 때였습니다. 빔 중량이 무거워 강풍에 문제없을 수 있었지만, 하부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강풍으로 인한 거더의 전도가 우려되었죠. 대우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너나 할 것 없이 빔과 빔 사이를 임시 고정하는 전도방지철근을 연결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높은 거더 위에 올라갔지요. 우천으로 용접이 어려우니 철선으로라도 묶자 하여 저녁 늦게까지 연결을 마무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고, 그 덕분에 안전하게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사수하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시스템

이렇듯 이번 현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다. 이창선 소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가장 첫 번째 가치로 꼽고 안전을 기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목표인 CPSW(Checking Pre-Safety Working)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 “전일 일일안전회의 시 톱 리스크(Top-Risk)를 선정하고, 작업 전에는 메신저를 통해 안전대책의 준수 여부를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고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작업 전에 확보했습니다.”

안전팀 김상일 대리는 웹(Web) 카메라 시스템의 적용도 효율적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천한다. “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중요 작업 포인트를 선정해 CCTV 시설을 3개소에 설치해 사고 위험 지역이나 안전사고지대 실시간 감시, 고가장비 및 자재도난 방지, 근로자 안전위반행위 적발 및 수정, 온라인 안전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우회도로 현장의 선구적인 안전대책 중 하나로 ‘비계 검측 제도’도 꼽을 수 있다. 안전팀 김상일 대리의 말이다. “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이나 자재 낙하 또는 비계 도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2016년 하반기부터 비계 설치 시 사전에 조립도를 승인하고, 조립 완료 시 협력업체 공사담당, 대우건설 공사담당, 안전관리자가 합동으로 비계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비계 검측 제도(PTW적용)를 운영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을 투입하는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 목공들이 전문지식이 없이 강관비계를 설치해 검측 시 여러 번 다시 제작하거나 보완하는 등 작업 진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협력업체 소장이 회의에서 “차라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서 전문공들이 시공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2017년 상반기부터 현장 내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시스템 비계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워라밸, 선순환을 만드는 원동력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초심을 쉽게 잃는다거나
협동력이 다소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용인우회도로 현장은
단합력이 높기로 유명하다. 공무팀 최창순 과장은
그 비결로 ‘월 1회 직원 단합대회’를 꼽는다. “매월 볼링, 탁구,
당구 등의 종목을 정하고 모여서 단합대회를 개최합니다.
서로 맘을 흘리며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하여 집중하다 보면 서로
서운했었던 점, 바라는 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는 합니다.”
본선 준공을 몇 달 앞둔 2018년 5월에는 동해안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성공적인
개통을 기원했습니다.” 그 덕분일까, 직원들의 바람대로
큰 사고 없이 개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용인우회도로 현장은 시대 흐름에 맞춰 업무 혁신을
이뤄낸 점도 주목할만하다. 공사팀 전강배 대리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현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불필요한 서류,
회의 등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 준수 및 휴무 사용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업무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현장에서는 매서운 눈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퇴근 후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빠, 엄마로
돌아갑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의 행복은
회사 일로도 이어지며 결국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올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전강배 대리는 이를 ‘선순환’이라는 말로
정리한다. “다시 말해, 이는 선순환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일과 가정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용인우회도로 현장은 워라밸이 있는 최고의 현장이라고
자부합니다.”

people



“용인우회도로 현장은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추가공사를
수의 계약했으며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사고 없이
본선 개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선 소장

letter from INDIA

언제나 애뜻한 당신에게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완성된 사랑이 다시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온 아내와
두 아들에게 따뜻한기 위해 성실한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홍천곤 대리. 인도 비하르 현장에서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다.



아이짱,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 편지 쓰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네.

시온이, 리온이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해외 나간 남편
대신해 일본도 아니고 타국인 한국에서 개구쟁이 두 아들놈
돌본다고 말이야.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해. 경상도 남자라는 핑계로 그동안 집안일도 잘 안 하고
아이들이랑도 잘 못 놀아준 것 같네. 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비행기에서도 항상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어. 아이들과 더 많이
놀 걸, 아이짱을 더 많이 도울 걸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 아플
때나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하는 게
항상 속상하고 그래. 휴가 때라도 나를 잘해 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지? 내 마음만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해.

한국도 꽤 쌀쌀해졌구나. 여기도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네. 나는 인도 비하르에 있는 겐지스강에서
일하고 있어. 히말라야에서부터 약 2,500km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지. 여기서는 힌디어로 "Ganga"라고 불러.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죄를 씻기 위해 목욕도
하고 망자를 극락에 보내기 위해 강물에 장례화장을 하기도
해. 힌두교 지역이라 이들이 숭배하는 소들도 강에서 씻고 먹고
놀기도 하지. 나와 동료들은 이 강을 건너는 메인 교량인 10km
연장의 특수교량을 담당하고 있어. 지난번 카타르 고속도로
현장과는 다르게 인도현지 업체인 L&T와 Joint Venture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단 9명의 한국인 직원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

4개월 전 아이짱에게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인도라고 뭐 다를 것 있겠어'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와서 겪어보니 또 색다르더라고.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업무 수행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꽤
어려운 편이야. 우리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챙겨야 일이 진행되더라고. 또 인도 현지 스태프들은 '여기는
인도여서 괜찮다'면서 본인들의 스타일을 고집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 그래도 10월 중순에는
우여곡절 끝에 65개 주탑 중 첫 주두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어. 공사팀 전 직원이 합심해 밤새 타설하면서
끈끈한 전우애와 동료애가 생겼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남은 주두부, 주탑, PC거더
거치 등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어.

여기는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그런지 꽤 덥고 습한
편이야.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게다가 여기저기 소동이 많아서
발밑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지. 하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한 공정, 한 공정 버텨내고 있어. 나름
맛있는 한국음식도 먹으며 말야.

물론 내 일은 아이짱이 아들 둘 혼자 돌보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 거야. 현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어주길 바라. 시온이,
리온이가 아직 어려 이 편지를 못 읽겠지만 나중에 커서 이
편지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아빠를 이해해주고, 아빠가 많이
미안해하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

리온이 태어난 지 2주 됐을 때 카타르 갔었는데, 인도에
오니 리온이가 벌써 말하기 시작하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젝트 잘 수행하고 돌아갈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인도 비하르에서 곤짱이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책상,
의자 세트를 선물하고 싶다는
홍천곤 대리의 마음을
<대우건설인>에서 대신 전했습니다.

delivering for you

SINGA- PORE tmi

분주한 도심과 그림 같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62개의 작은 섬과 가장 큰 싱가포르섬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는 푸르른 자연과 알찬 볼거리, 독특한 문화를 자랑한다.



나무 사랑이 만든 풍경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하지만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토 3분의 2가 진흙 펄과 늪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었다.

국토의 약 80%가 해발 15m 미만의 평지인 탓에, 유입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지금처럼 녹음 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65년. '정원도시' 컨셉의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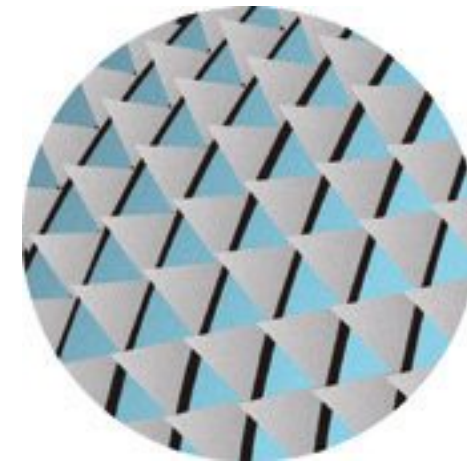
현재 싱가포르섬 전체에 심어진 가로수는 300여만 그루에 달한다.



물 안 돼요, 두리안 싫어요

싱가포르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다.

'자동차 증가율 0%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한데, 차량 운행 증서 발급을 제한해 국민의 약 10%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대신 지하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적극 장려하는 만큼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는 편이다. 음식 제제도 철저하다. 버스, MRT(지하철), 택시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물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천국의 맛 지옥의 향기'라 불리는 두리안을 들고 지하철을 타다 적발되면 우리나라 돈 약 41만 원의 벌금을 문다.



7,000개의 삼각형, 예술이 되다

싱가포르 5센트 동전에 그려진 건물, 바로 복합 문화 공간 '에스플레네이드'다. 2002년에 오픈한 이후로 발레, 오케스트라 등 4만 1,000건이 넘는 공연이 열렸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2개의 유리지붕은, 약 7,000개의 삼각 알루미늄 햇빛 가리개로 만들어졌다. 이 삼각 알루미늄은 실내공간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필터링해 실내에서도 그림자와 질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삼각형의 틈새는 숙련된 기술공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청소한다고. 뾰족한 외형 덕분에 두리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표지판 속 4개의 언어

중국어 75%, 말레이계 13%, 인도계 9% 등 인종 구성이 다양한 싱가포르는 사회적으로 인종 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 중 하나다. 언어 역시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총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대다수의 표지판에서 역시 이 4개 언어를 각각 표기한다. 종교도 별도의 국교를 선정하지 않고 불교와 회교, 기독교, 힌두교를 모두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나라의 총인구는 530만여 명이지만 사회관습과 음식문화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소울푸드 말고, 소울푸드코트 '호커센터'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코트 혹은 포장마차 형식의 저가 음식점 '호커센터'를 운영한다. 2018년 기준 전국 100여 개 호커센터 내에는 약 1만 5,000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다. 2016년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싱가포르의 정체성에 호커센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인종과 사회 계층을 포용하는 문화적 요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고무줄 2개가 불러온 벌금

싱가포르는 다양한 벌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길거리에 고무줄 2개를 낄렀다가 '쓰레기 투기'로 우리나라 돈 약 25만 원의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3만 9,000여 명이 쓰레기 투기로 벌금을 냈다. 공공장소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와이파이를 허가 없이 당겨 쓸 경우에도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이나 무기 밀매,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태형을 집행한다.



DAEWOO E&C project

신뢰와 실력으로 튼튼한 발판이 되다 싱가포르지하철216공구 현장

싱가포르지하철216공구 현장은 싱가포르 북단 우드랜드 노스역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약 30km의 통순라인 중 스티븐스역을 관통하는 216공구를 건설하는 공사다. 지하역사 1개소와 2.93km의 터널을 포함한 3.2km의 지하철 구간을 시공하는 현장으로,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데다 환승역을 포함하고 있어 통순라인 공사 중 가장 까다로운 구간이다. 하지만 사각 TBM을

도입해 굴진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과 울타리 설치, 현지 기후 특성을 고려한 방역 등을 통해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의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남은 공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한층 두터워진 신뢰와 입증된 실력으로 싱가포르 건설시장에서 회사의 입지를 계속 확장해나가길 기대해본다.



건설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다

BIM 건설정보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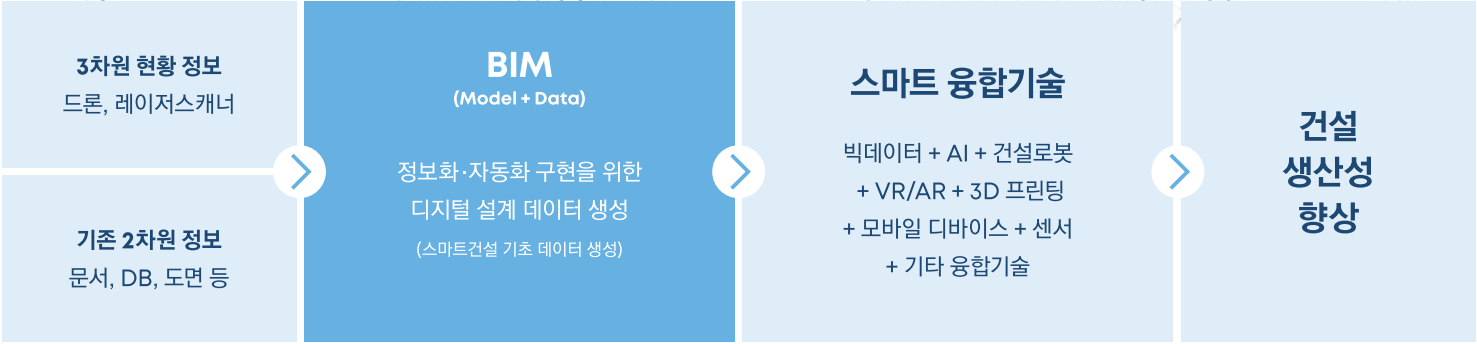
컴퓨터 속에 실제 건물과 똑같이 3D 모델을 짓고, 거기에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여 건설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할까.

BIM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든 기술이다. 앞으로 도래할 스마트 건설 시대에 필요충분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BIM**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스마트 건설기술 중 BIM의 역할



BIM은 우리말로 ‘건설정보 모델’, ‘건설정보 모델링 하기’, 또는 ‘건설정보 모델관리’로 번역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 아직 생소한 BIM의 개념을 국내 주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조달청은 BIM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2D에서 3D로 한 차원 격상시키고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빌딩스마트협회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물(프로젝트)의 전 수명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건축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리하면, BIM은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모델 즉 3D 설계 데이터베이스이며,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설계 검토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천후 B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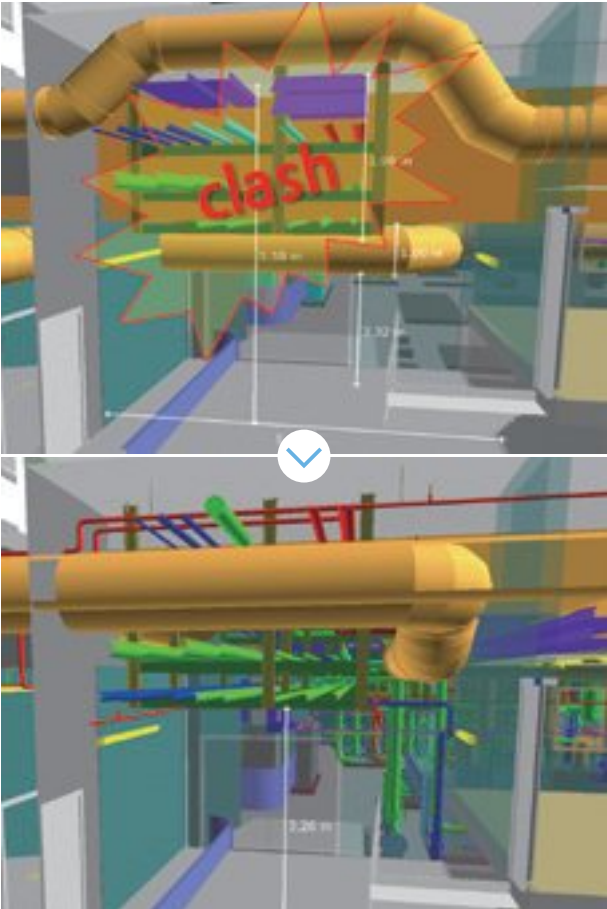
앞서 정의에서 밝히고 있듯, BIM은 건축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설계 검토부터 도면 작성, 물량 산출, 유지 관리 등 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BIM이 어떻게 건축설계의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BIM에서는 체계적인 설계 검토가 가능하다.¹ 3D 모델을 활용한 입체적인 설계 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 공종 간의 간섭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코디네이션 과정을 통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시공 리스크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대우건설은 다수의 현장에 BIM을 적용해 설계검토를 수행했으며, Pre-construction 기법을 도입하여 단순히 설계오류를 검토하는 수준(Design Review)을 넘어 시공성, 사용성 등의 가치를 고려해 설계를 최적화(Design Optimization)하는 수준을 지향한다. 명동3지구오피스(기업은행사옥) 현장은 Pre-construction의 첫 번째 시범적용 현장으로, BIM을 활용해 설계 최적화를 이끈 사례로 손꼽힌다.

두 번째로, 3D 모델로부터 2D 도면을 추출할 수 있다.² BIM을 이용하면 3D 모델에서 원하는 부위의 2D 평면, 입면, 단면 추출이 가능하다. 3D 모델로부터 2D 도면을 추출해 Shop DWG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3D 모델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부위와 관련된 평면, 입면, 단면 등 모든 도면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는 도면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설계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우드랜드병원 현장에서 대부분의 2D 도면을 모델로부터 추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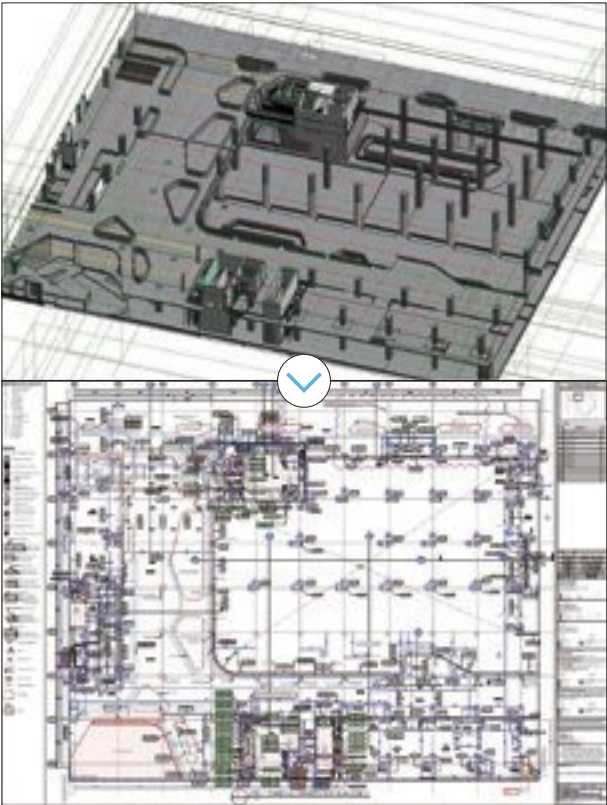
BIM의 활용도

1. 체계적인 설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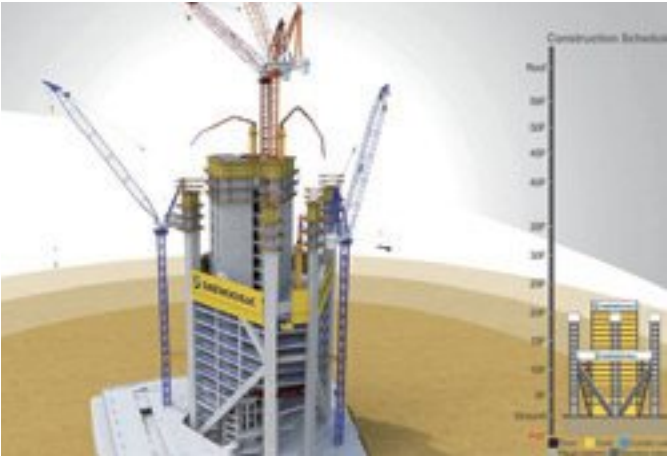
BIM의 활용도

2. 3D 모델로부터 2D 도면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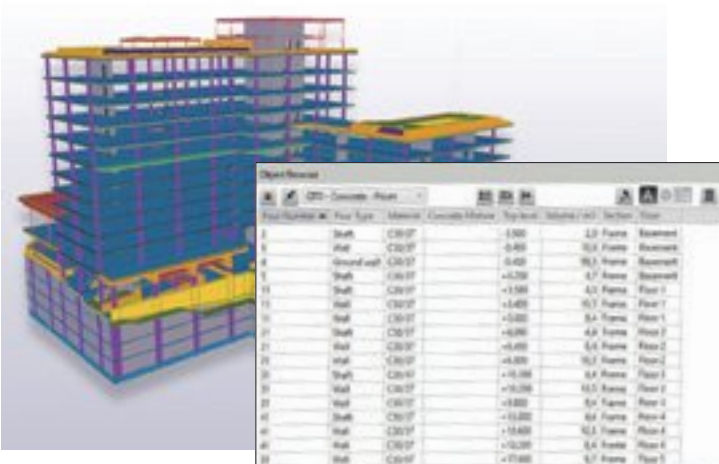
BIM의 활용도

3. 시공성 검토



BIM의 활용도

4. 물량 산출



BIM의 활용도

5. 제작 모델 작성



세 번째는 시공성 검토다. 3

3D 모델에 시공 스케줄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시공 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세 모델링을 통한 복잡한 부위 검토, 장비 운영 시물레이션을 통한 시공 검토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더욱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물량 산출이다. 4

BIM 모델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 정보(부재 정보, 길이, 면적, 체적 등)를 활용해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델로부터 추출된 물량 정보를 기반으로 내역화를 하고 단가를 반영하여 모델 기반의 견적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제작 모델 작성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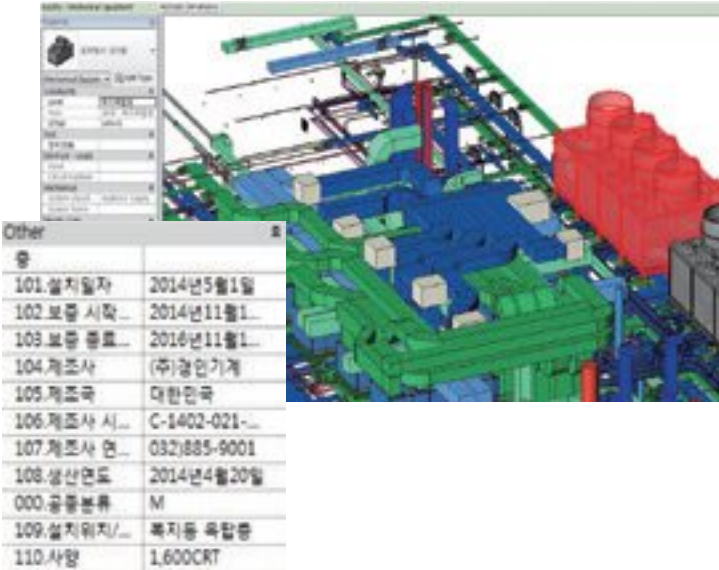
비정형 부재, PC 부재, 모토시공 부위 등 공장에서 부재를 사전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시공을 수행하는 경우, BIM 모델을 활용한 입체적인 설계 검토와 공종 간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시공 시 발행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유지 관리다. 6

시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BIM을 업데이트해 준공 BIM 모델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장비의 유지 관리 정보를 라이브러리에 반영해 FM (Facility Management) BIM 모델을 작성하면, 이를 유지 관리 플랫폼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준공 BIM 또는 FM BIM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물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모델로도 확장 가능성이 높다.

BIM의 활용도

6. 유지 관리



마지막으로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디지털 설계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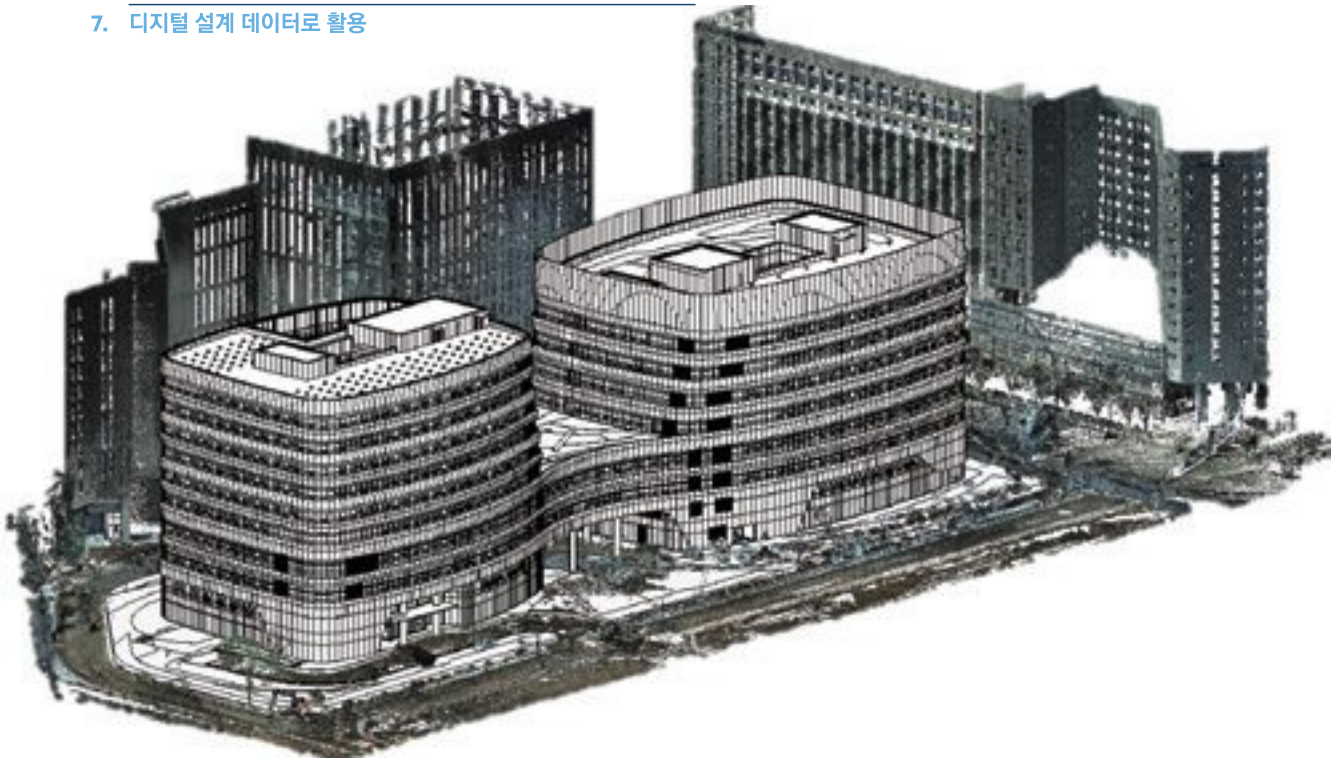
다양한 I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에 BIM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드론 및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디지털 측량 데이터를 BIM 모델과 통합해 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오스템임플란트중앙연구소 현장, 성남수진역푸르지오시티 현장 등 복수의 현장에서 레이저스캔 데이터와 BIM 모델에 활용하여 입체 검토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 또한 BIM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프린팅, 준공 BIM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 구축이 가능하다. IoT 및 각종 센서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와 연동한 시설물 실시간 관리, VR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설계 검토, 안전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BIM이 단순 3D 모델링에 그쳤던 이유

BIM은 이러한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3D 모델링과 그 과정에서 설계 오류 검토를 하는 수준의 기술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실무자들은 (일부 담당자를 제외하면) 추가 업무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수행하는 기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기술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BIM이 단순 3D 모델링 이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BIM 적용의 계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적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는 BIM 발주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수준으로만 적용해왔기 때문에 BIM이 단순 3D 모델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BIM의 적용을 통해 기존의 업무를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었다면, 현재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나은 모습으로 BIM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전환설계 방식의 적용이다. 전환설계란 실시설계 결과물을 BIM이 아닌 2D 설계의 형태로 납품받은 후

BIM의 활용도

7. 디지털 설계 데이터로 활용



시공사에서 2D 설계를 기반으로 3D BIM을 구축해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BIM이 도입되었던 초기부터 줄곧 강조되어온 BIM의 최대 장점인 '정보의 재활용'에 반대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BIM 설계를 위한 환경구축 비용, 소프트웨어 전환비용, BIM 설계대가의 불명확함 등을 이유로 설계사에서 BIM 실시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계사의 BIM 적용 여부는 계약 관계상 시공사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BIM 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전담조직의 부재, 회사 표준 절차의 부재, 장비·소프트웨어 및 전문인력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BI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건설분야에서 '스마트 건설'이 이슈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 BIM은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BIM이 단순한 3D 모델이 아니라 설계 데이터베이스로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BIM 개념의 창시자인 미국 조지아공대의 척 이스트만 교수가 한 문장으로 BIM을 표현했었던 "시설물의 전자적 표현" 또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시설물의 표현"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건설의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BIM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제는 BIM이 단순 3D 모델링 작업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 설계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티타임 도시 여행

하얀 설원
녹색 영혼

GREENLAND

세계지도 속 그린란드는 항상 하얀색으로 칠해져
생명체 하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지구의 북쪽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글. 김인숙(도서 <그린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저자)



역사와 문화를 지닌 하얏고 거대한 섬

그린란드는 북극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국토의 80% 이상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하얏고 거대한 섬이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서 살게 된 지도 올해로 4년. 나는 현재 그린란드에서 거주권을 가진 유일한 한국 국적 소지자다. 한국을 중심에 놓은 세계지도에서 그린란드는 위쪽 양 끝에 돌로 나뉘어 나타나고는 한다. 아예 그려져 있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손을 흔들고 싶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추위와 거센 눈보라를 견뎌야 하는 그린란드에는 기원전 2500년부터 이어져온 역사와 문화, 반짝이는 여름이 있다고. 빙하와 개 썰매는 물론 온천과 빙하수로 만든 시원한 맥주가 있다고.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유럽을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섬이다. 역사와 정치, 문화적으로는 덴마크와 밀접하다. 230여 년간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은 과거 때문이다. 이후 2009년 자치 정부를 얻었으나 국방, 외교, 경제권은 아직 덴마크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린란드를 ‘유럽 국가’라 칭하기에는 어렵다. 그린란드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이누이트라 불리는 에스키모인이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며 그린란드의 자연과 언어를 지켜왔다. 이누이트는 한국인과 생김새가 많이 닮았는데, 심지어 이누이트 아기들은 몽고반점을 달고 태어난다. 가끔 덴마크인들이 그린란드 아기를 보고 혹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이 아니냐고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하니 왠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빙하에 둘러싸인 여름의 초록 들판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기후와 날씨는 무척 다르다. 하지만 그린란드 하면 대개 빙산, 북극곰, 얼음, 추위 등을 떠올릴 것이다. 지난 2017년만 해도 8월 말부터 시작된 눈이 이듬해 6월 초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그린란드의 1년 중 3분의 2 이상은 겨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존재한다. 바다 위에는 빙산이 떠 있고 노란 꽃들과 초록 들판이 있는, 그린란드 여행의 성수기로 손꼽히는 시기이기도 하다. 6월부터 8월 약 세 달의 기간으로, 해가 길어 바깥활동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날씨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남 그린란드의 여름은 초록 들판과 노란 민들레, 유채꽃을 닮은 북극 미나리아재비가 장악한다. 귀여운 양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빙하에 둘러싸여 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이 여름을 제대로 누릴 줄 안다. 그린란드의 ‘그린’ 속에서 빙하로 만든 맥주를 마시는 기분은 꽤나 특별하다. 여름 동안에는 자정이 지나도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아 밤을 즐기기도 제격이다. 다만, 이는 오로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린란드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보통 9월에서 다음 해 3, 4월 초까지다.



구름처럼 훑날리는 겨울의 초록 하늘

오로라. 그린란드어로는 ‘악쌍느헛’이라 한다. ‘공을 가지고 노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이누이트 사이에서는 오로라를 두고 죽은 영혼들이 바다표범의 해골로 공놀이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린란드에 오고 나서 다섯 번의 이사를 했는데, 장소마다 다른 오로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오로라를 처음 만난 것은 창문만 열면 걸리는 것 하나 없이 드넓은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 기숙사 아파트에서였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창밖에 아른거리는 초록빛을 마주한 나는 새벽이라는 것도 잊고 룸메이트의 방을 두드렸다. “오로라, 오로라야!” 그리고 추운 베란다에 서 오들오들 떨며 오로라를 바라보았다. 보통의 오로라는 여러 사진 속 모습처럼 선명하지 않다. 마치 초록색의 구름이 커튼처럼 훑날리는 듯하다. 카메라로 찍으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강한 오로라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가 뜬 날이면 나는 언제나 카메라 셔터를 누를 준비를 한다. 매번 다른 모습과 다른 색깔의 오로라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다만 오로라만을 기대하고 그린란드에 오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린란드의 겨울밤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과 영롱한 달빛으로 인해 생각보다 밝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거나 하늘이 흐려도 오로라를 보기 힘들다. 맑은 하늘과 도시 불빛이 덜한 위치, 높은 오로라 지수,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오로라를 볼 수 있다.

곧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다가온다. 12월 첫째 주가 되면 그린란드의 온 건물 창문마다 주황색 종이별이 달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등불이 걸린다. 하루 평균 서너 시간만 해가 뜨는 그린란드의 겨울. 그곳에서 주황색 별과 따뜻한 불빛은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된다. 나는 또 한 번 초록색 오로라와 주황 별빛이 있는 그린란드의 겨울을 맞이할 테다.



writer

김인숙
대학생이던 2010년 2주간 그린란드의 일곱 마을을 혼자 여행했다. 이후 UCL 런던대학교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그린란드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논문을 썼다. 2015년 그린란드로 돌아가 그린란드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극 정책과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취미 레슨

영상 콘텐츠, 나도 만들어볼까?

‘즐겁게 만들며 돈도 번다’는 인식
때문일까. 평범한 직장인 중에서도
취미 삼아 영상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진입장벽을 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입문자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들만 모았다.

STEP 1



나의 매력 찾기 영상 주제 선정

영상 콘텐츠의 관건은 나만의 개성을 찾아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 소꿉한 물건들을
펼쳐보고 품평하는 ‘하울’(haul), 화장법이나
스타일링 방법을 공유하는 ‘GRWM’(Get
Ready With Me), 각종 강좌 동영상 ‘How To’,
심리적 안정을 주는 소리를 공유하는
‘ASMR’ 등등 콘텐츠의 소재와 테마는
매우 다양하다. 시청자의 관심을 붙잡으려면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양질의 콘텐츠가
필수!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평소 자신이 즐기는 취미나
특기를 부각해 지속가능한 아이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STEP 2



너 나의 동료가 돼라 영상·오디오 장비 안내서

카메라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우선 가볍고, 고성능의
동영상 오토포커스(AF)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효율적이다. 촬영 입문자라면 렌즈 교환 없이
광범위한 화각을 아우르는 일체형 콤팩트
카메라를 추천한다.

마이크
영상의 묘미에서 듣는 재미가 빠질 수 없다.
오디오 장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
스마트폰과 DSLR에 모두 사용 가능한
보야의 ‘BY-MMI’를 추천한다. 후면과 측면의
소리를 제한하고 전면의 중요한 사운드를
캐치해 수음한다.

액션캠
한층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생생한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면 액션캠이 필수다.
‘고프로 히어로7’은 10m 깊이 방수까지
지원해 수중 촬영도 문제없다.

슬라이더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아름다운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슬라이더에 주목해보자.
좌우로 유유히 움직이며 안정감 있는
촬영을 돕는 장비다. 24cm, 약 550g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에델크론의 ‘슬라이더원’을
추천한다.

짐벌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짐벌.
스마트폰이나 액션캠과 연결해 움직임이 많은
장면을 더욱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입문자라면 휴대성이 뛰어나고
조작이 간편한 원핸드 짐벌을 권한다.

STEP 3



내 손 안의 편집 도우미 진입장벽 확 낮춘 영상편집 앱 ‘VLLO’

장비는 거들 뿐, 중요한 건 편집의 완성도다.
복잡한 전용 소프트웨어 없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고퀄리티 영상을 똑딱
만들 수 있다. 쉽고 직관적인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 ‘VLLO’는 별다른 설명서도
필요하지 않다. 영상을 배열한 후 잘라내기,
오디오, 글자, 필터 등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적용만 하면 영상 하나가 똑딱
완성된다.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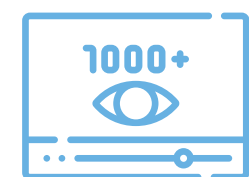


혼자 보면 재미없지 완성된 콘텐츠 공유하기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최강자는
단연 유튜브다. 15초짜리 짧은 동영상
올릴 수 있는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며 10초 이내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놀이앱 ‘띠잉’ 등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도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매년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열리는 ‘29초
영화제’는 총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tip

중급자들을 위한 TIP 구독자 늘리는 두 가지 방법



1
제목으로 유인하라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검색에
많이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상 내용과 관련
있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감각적인 제목을
달아야 이용자의 클릭으로
이어진다.

2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라
홍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속성으로,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가볍게 올리는 콘텐츠,
장기적인 기획 아래 주
1회 올리는 콘텐츠, 특정
이벤트에 맞춰 올리는 콘텐츠
등 콘텐츠로 종류를 크게
나누어 제작하는 게 좋다.



직장의 神

No. 4

2019 11 + 12

핵심만 쏙쏙

2019 연말정산 함께 보기

한정민 사원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노하우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풀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한정민

사원

우리 머리 속에 지우개라도 있는 걸까. ‘매년 해도 매년 헛갈린다’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온다.
몰라서, 깜빡해서, 귀찮아서 빠뜨리는 대우건설인들의 숨은 돈을 찾기 위하여,
인사팀 한정민 사원과 함께 2019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

카드, 주택자금,
도서·공연비 공제 등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방식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자녀 공제 등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한정민

사원

함께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정세액(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 환급세액과 징수세액에 집중하기보다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한 해 동안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3개월간의 카드 사용액을 예측하여 남은 2019년 지출 시 결제수단 선택에 참고하도록 한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하는 게 현명하다.

25%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 : 40%

15%

30%

30%

40%

올해부터 달라지는
대표 제도들

- 7월 1일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 소득공제 총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비와 공연비를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연봉 7,000만 원 이하)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필수(연봉 7,0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증명 절차 단순화. 근로자와 부양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통해 관계 확인 가능

₩2,000,000

직장의 신이 전하는 연말정산 TIP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중고생 교육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집계 되지 않으므로 따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에 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보험사의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된다. 의료비 공제 부분에 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내역이 포함될 경우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두 공제되는 걸까?

각종 보험료, 공과금, 신차 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 사용비, 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도 해당되니 인적공제를 받기 전 가족의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부당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를 둔
임직원 여러분 주목!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됐다. 단, 6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학에 수시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 OK

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1,000,000

부양가족

인사팀

₩1,000,000

자녀

인사팀

₩1,000,000

월세

인사팀

인사팀에서
알립니다

한정민

사원

서류 마감기한

2020년 1월 21일(화)

서류 제출

연말정산센터(상세 장소는 1월 중 공지 예정)

문의

인사팀 한정민 사원
jeongmin.han2@daewooenc.com

* 1월 24~27일은 설 연휴입니다.
원활한 연말정산 진행을 위하여 연휴 전
서류 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려라

디지털 디톡스

한 세기 전, 아인슈타인은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 날이 두렵다. 세상은 결국 천치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말로 세상이 ‘천치들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걸까? 손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한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 우리는 ‘디지털 과잉’의 역습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주인은 과연 스마트할까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며, 심지어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본다. 여럿이 모여 각자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다. 대다수 사람이 하루 대부분을 손안의 화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요즘, 현대인들의 화두는 단연 ‘연결되지 않을 권리’다.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환경에서 탈출하고 빠앗긴 몰입과 휴식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영국에서는 한 달간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드라이파이 재뉴어리(Dry-fi January)’ 캠페인이 펼쳐지기도 했다. 영국 게임브리지 사전은 2018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노모포비아’를 꼽았다. ‘No mobile phone phobia’를 줄인 말로,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뜻한다. 만약 당신이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메시지가 왔는지 반복해서 확인한다면 노모포비아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포모증후군’의 위험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딴 말로,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는 것 같은 고립공포감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경험을 할까 두려워 강박적으로 SNS를 들여다보는 행동,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걱정돼 강박적으로 SNS를 하는 행동, 좋은 것을 보거나 먹을 때 반드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행동 등이 포모증후군의 주요 증상이다.

‘디지털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디지털 기기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일상뿐만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뇌에 자극이 생겨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바뀐다고 경고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인지능력 저하다. 독일의 뇌신경 전문의 만프레드 슈피처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어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디지털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 역시 인간의 자발주의력을 앗아가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덕분에 진짜 누려야 할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는 퇴색되는 양상이다. 디지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진정 몰입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가 절실한 이유다. 주요 IT 기업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으로 바꿀 것을 권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밝은색에 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화면만 흑백으로 바뀌도 시선이 덜 가고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설 새 없이 울리는 알람 기능을 모두 끄고, SNS나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다. 스마트폰 알람 설정을 꺼두고 메일 확인 횟수를 하루 3회로 줄이자 업무 중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실행하는 앱들은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침대로 스마트폰 가져가지 않기, SNS 친구 추가는 꼭 필요한 사람만 하기,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 하지 않기, 메신저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기 등의 실행매뉴얼도 참고할 만하다. 디지털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저하되고 행복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편리해지고 빨라지며 효율적으로 변한 대신, 이 스마트한 기계로 인해 잃은 것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문해볼 때다. 일주일여 하루도 좋고, 하루 중 단 몇 분도 좋다. 기계 없이 오롯이 ‘나 자신’과 ‘진짜 삶’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늘려나간다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복과 마주할 것이다.

Digital Detox



스마트폰 의존도 자가진단법
1.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2.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매번 실패한다.
3.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scoring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result
23점 이하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다.

24점~28점 ‘잠재적 위험군’으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이 약해지고 사용시간이 늘어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29점 이상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는 상태다. 대인관계 갈등과 일상의 역할 문제는 물론 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서울숲에서 꽃 피운 푸르지오 장미

코끝이 시큰해지는 겨울이 다가온다.
추위 속에서도 수천 송이의 장미가
도시를 밝히는 곳이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이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하는 도심 속 공원 서울숲. 과거 '독섬 경마장'이라고 불렸던 서울 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며 조성된 공원이다. 과거의 흔적을 남기듯 공원의 초입에는 경주마를 형상화한 군마상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군마상 주위로, 지난 달부터 4,000여 송이의 LED 장미가 꽃피우기 시작했다. 바로 푸르지오가 준비한 장미 빛 정원이다. 지난 4월, 푸르지오는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 Natural Nobility'를 철학으로 새로운 변화를 택했고, 그 후로도 고객들에게 고귀한 본연의 삶의 철학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미 빛 정원도 그 노력 중 하나다.

공원을 즐기기 위해 서울숲을 방문한 고객들은
빛으로 꽃피운 장미의 모습에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보름달에 걸터
앉는 듯한 조형물 '보름달 정원'과 장미 빛
정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숲의 계단'은
단연 포토존으로 인기 만점이다.
함께 온 가족, 연인들은 서로의 사진을 찍고
찍어주느라 바쁘다. 매일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는 라이팅쇼도 펼쳐진다. LED
장미가 색색 불빛으로 빛나며 어두워진
서울숲을 화려하게 밝히고, 장미들 사이로
다양한 색상의 PRUGIO 로고가 순간적으로
연출된다. 방문객들은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숨죽인 채 기다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푸르지오만의 감성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고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베스트 포토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숲 푸르지오 장미 빛 정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면
매월 베스트 포토 10건을 선정해
‘조셉조셉 도마’를 증정한다. 필수
해시태그인 #PRUGIO #푸르지오
#장미빛정원 #서울숲을 잊지 말자.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푸르지오
홈페이지(www.prugio.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푸르지오비씨 어린이집

회사 속에 피어난 작은 마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이들의 애정과 노력 그리고 적절한 가르침이 필요한 법이다. 대우건설은 임직원과 그 가족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되어 줄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본사 4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2016년에 개원해 대우건설 임직원은 물론 그 자녀들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마땅한 보육시설이나 육아도우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요즘, 사내 어린이집은 육아로 고민 많은 임직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니 출근과 퇴근에 부담이 적어 더욱 인기가 많다. 아이와 한 건물에 있으니 더욱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잠시 틈을 내어 방문할 수 있다.

만 1세부터 만 5세 이하 유아를 자녀로 둔 대우건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시설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나이에 꼭 발달되어야 하는 ‘연령별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통해 감각을 자극하고, 식재료를 놀이 도구로 삼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고, 직접 팝업북을 만들어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등이다.

지난 10월 말 입소 신청을 마무리한 대우건설비씨 어린이집은 내년 3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다. 비씨카드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함께해 총 7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어 더욱 활기를 띠 예정이다.



people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큰 기쁨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욱 그렇고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부모님들이 어려움 보다는 육아의 기쁨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온 마음을 더해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푸르지오비씨 어린이집
이은정 원장



BUILD TOGETHER

함께하는 2019 기업문화 캠페인

기업문화의 혁신은 곧 회사의 성장동력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우건설이 함께한 기업문화 캠페인을 한 데 모았다.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관련 팀과 함께
고민하고 도출해낸 활동들이다.

기업문화 캠페인 주제 공표

2018년 맥킨지 기업문화 개선과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마인드 셋의 변화’를 주제로 구체적인 실천 행동 9가지를 제안했다.

기업문화 개선 과제	캠페인 세부 주제
일하는 방식 변화	- 업무 집중 - 스마트 회의 - 스마트 보고 - 업무와 쉬는 시간의 구분
마인드 셋 변화	- 리더십과 팔로워십 - 주인의식과 윤리의식 - 건전한 회식문화 - 협업과 소통 - 칭찬과 감사

캠페인 포스터 9종 제작

- 연간 3회 캠페인 포스터 제작 : 7월/8월/10월
- 세부내용 중 3개 주제로 시리즈물 포스터 제작

캠페인 포스터 세부 내용

- B급 감성이라 불리는 키치(Kitsch)컨셉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 메시지를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카피 중심으로 구성 및 제작
-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직급/입장별 시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주제별로 상반되는 입장 또는 다른 생각을 함께 표현

2019년 7월 1차 캠페인 포스터

업무 집중

주 52시간 근무로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초과근무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나, 업무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습관성 야근이 반복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멀티태스킹은 NONO(인터넷 서핑, 사적인 연락, 스마트폰 사용 자제)
-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일하기(집중 근무 시간은 60분 이내)
-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정하기
- #미루지 않기(일단 시작하기, 마감 시간 정하기)

스마트 회의

회의는 책임져야 할 성과목표나 해결과제를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 전략을 수립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며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자기 의견 없이 주류의견에 편승하는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정보와 자료는 미리 공유하기
- #회의 전 자료 숙지하기
- #최대 1시간 안에 무조건 마치기
- #책임은 명확히(누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지)
- #회의 결과는 모든 참석자에게 공유하기

스마트 보고

업무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보고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업무 효율 극대화의 첫걸음은 스마트 보고로부터 시작된다.

- #서면 보고 최소화 #작성자가 직접 보고하기
- #보고서 양식 통일하기(무의미한 PPT 사용 않기, 짧고 쉽게 쓰기)
- #리더의 덕목: 결정은 빠르게, 피드백은 핵심만 명확히





2019년 8월 2차 캠페인 포스터

업무와 쉬는 시간의 구분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
일과 쉼을 명확히 구분하고 휴식을 통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충전한 후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일잘러'
#쉬고 또 쉬는 건 반칙



리더십과 팔로워십

존경받는 리더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의 결과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소통과 공감을
이끄는 리더가 존경 받는 리더다. 좋은 리더는
적극적인 팔로워가 만든다는 사실도 명심할 것.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닌, 치열하게 고민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

#자아성찰 필수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인가
#나를 파악하고 보완점 찾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명확한 피드백은
리더의 핵심 역량
#팔로워십은 조직을 움직이는 힘



주인의식과 윤리의식

일의 결과는 주인의식과 윤리의식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주인의식은 회사의 모든 일에
주체가 되어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윤리의식의 결여는 성희롱,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등의 사례로 개인과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우건설의 핵심인재는 바로 나
#잘못된 관행은 당당히 개선 요청하기
#모든 관계는 존중으로부터

2019년 10월 3차 캠페인 포스터

건강한 회식문화

회식은 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일부 구성원만 즐거울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요즘 선호하는 문화·테마회식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한 회식 등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회식은 가끔만
#일정은 사전 공지 필수
#회식 119(1가지 술로, 1차에서 9시 전에 끝내기)



협업과 소통

협업의 효과는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함께
개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 총합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수평적 동료
#있는 그대로 듣기
#정확하고 쉽게 말하기
#일정 마감은 생명!



칭찬과 감사

평소 본인이 말하는 스타일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칭찬과 비난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비난은 상대를 베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살도 함께 베는 것이고,
칭찬은 상대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칭찬과 감사는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함께합시다, 칭찬과 감사인사의 3원칙
#즉시 바로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Live your life
PRUGIO ∅

모든 것이 새로워진
푸르지오

새롭게 단장한
SNS를 소개합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올해 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철학 'The Natural Nobility,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을 발표하고 새로운 BI를 선보였다. 또한 새로운 철학과 브랜드 발표에 맞추어 단순한 BI만의 변화가 아닌 커뮤니티 시설, 조정, 외경 등 상품 전반에 걸친 혁신과 변화를 함께 추진 중이다.

푸르지오 소셜 미디어(SNS) 역시 새롭게 단장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이던 페이스북과 더불어 새롭게 론칭한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총 3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SNS들은 신규 분양 소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식, 세무 상식 등의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여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푸르지오 SNS는 고객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SNS로 자리 잡았다.



푸르지오 페이스북
www.facebook.com/PRUGIO

푸르지오 페이스북은 신규 분양 단지, 입주 단지를 활용한 이벤트와 푸르지오 유튜브 채널 '푸르지오 라이프'에 발행되는 영상 콘텐츠 소개 등을 통해 푸르지오 메인 SNS로서 소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가로세로 퍼즐, 빈칸 퀴즈, 다른 그림 찾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주로 푸르지오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푸르지오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다. 최근 진행했던 '펜타힐즈 푸르지오 다른 그림 찾기' 이벤트의 경우 1,200명이 넘는 이벤트 참여자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푸르지오 유튜브 채널 '푸르지오 라이프'
www.youtube.com/PRUGIOLIFE

동영상 매체 활용도가 높아지는 최근 온라인 트렌드에 맞춰, 푸르지오는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발행되던 웹진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영상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로 바꿨다.

기존 건설사의 유튜브 채널이 기업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푸르지오 라이프' 채널은 사용자들이 주거상품, 부동산에 대해 실제로 가질 법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제시하는 정기 발행 영상매거진 형식이다.

푸르지오 분양 단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장 소식을 현장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전달하는 '현장을 만나다'는 타 건설사 유튜브 채널과 차별화된 푸르지오만의 콘텐츠이다.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된 다양한 하우투(How to) 콘텐츠도 발행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푸르지오 인스타그램 '푸르지오 라이프'
www.instagram.com/PRUGIOLIFE

유튜브 채널과 더불어, 올해 8월 '푸르지오 라이프' 인스타그램을 새롭게 오픈했다. 다채로운 푸르지오 단지 전경과 인테리어는 물론 푸르지오에 입주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통해 푸르지오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인 'The Natural Nobility' 본연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푸르지오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입주민들의 일상을 공식 계정에 리그램하여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푸르지오에 입주 중인 고객과의 소통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오룡지구 39, 40BL 공동주택신축사업 수주

지난 10월 16일, 오룡지구 39, 40BL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47,06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1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서산 예천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10월 16일, 서산 예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주했다.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53,764㎡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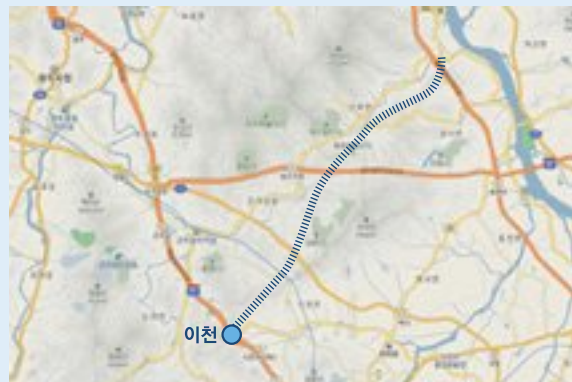
사이팸사와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지난 10월 22일, 이탈리아 사이팸(Saipem)사와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를 본사 20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Onshore Oil&Gas 및 LNG Industry에 대해 아시아, 모잠비크, 사우디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릴라마사와 MOU 서명식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릴라마(LILAMA)사와 Dung Quat I&II 복합화력발전소 공동참여 MOU 서명식을 본사에서 진행했다. 2020년 발주 예정인 두 사업은 베트남 남동쪽 중펏 경제개발구역에 각 750MW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1공구) 수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1공구)를 수주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4차로 도로 신설과 교량 8개소, 터널 1개소를 건설하며, 착공일로부터 84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라크 침매터널 제작장 계약 체결

지난 10월 19일, 김형 사장이 이라크 바스라주 GCPI를 방문해 침매터널 제작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발주처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올해 이라크에서 4번째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내년에도 컨테이너터널 PKG.2 및 침매터널공사 등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수의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CEO 안전점검 —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현장

지난 9월 25일, 김형 사장이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실시를 당부했다.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10월 15일, 조달본부·재무관리본부·푸르지오 서비스 임직원들은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마포구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방문해 도배, 장판 및 문틀 교체, 단열 작업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 실천하기' 기금이 사용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고덕그라시움 현장 준공

지난 9월 27일, 고덕그라시움 현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3층-지상 35층 53개동, 아파트 4,9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10월 2일,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현장이 청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4층-지상 49층 2개동, 아파트 466세대, 오피스텔 50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논현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10월 17일, 인천논현푸르지오 현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아파트 7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동탄역푸르지오시티 현장 준공

지난 10월 29일, 동탄역푸르지오시티 현장이 화성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6층-23층 2개동, 오피스텔 609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사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

열정적으로 임한다.

생각도 실천도
내가 먼저 한다.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자기일의 주인이 된다.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한다.



김애란
(화명센트럴푸르지오 현장 김승수 대리)
 저는 ‘오늘도 찰칵! 현장사진 촬영법’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은 SNS 세상, 전 국민이 사진작가인 시대에 나의 일상은 물론 감정까지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잘 찍지 못해서 ‘나도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장경순 과장님의 촬영 팁을 읽고 사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셔터만 누르기에 바빴던 저였는데 말이죠, 상세한 노하우까지 알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그 노하우를 실려 가족들과 가을 나들이 사진을 찍어봐야겠습니다.



장효진(주택건축전기팀 최규진 과장)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칼럼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부부를 보니, 13년 전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남편이 결혼 후 3개월 만에 아프리카 리비아 현장으로 갔을 때 괜히 투정 부리고 짜증 냈거든요. 먼 곳에서 저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알면서도 말 한번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저지만 오늘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IT운영팀 양경주 대리
 임직원의 자녀들이 부모의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꿈나무 초대행사’와 ‘FUN FUN 주니어 영어캠프’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놀이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다양한 놀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의 직장에서 친구를 사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 정관장 홍삼정 로얄
 2등(2명) —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 기프티콘 2만원 상당

※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02-2288-1883

아기 말놀이 그림책 새하얀 고양이



<새하얀 고양이>는 18~30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놀이 그림책 시리즈다. 주인공 고양이 캐릭터와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말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책으로, 생동감 넘치는 고양이의 표정과 말투, 의성어가 책을 읽는 아이들의 관찰력을 높이고 올바른 감정 표현법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책 속 캐릭터와 함께 호흡하는 경험은 일상에 상상을 더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고양이 얼굴 위의 울룩불룩한 예폭시 후가공을 손으로 만지며 놀 수 있어 촉각을 자극하는 즐거움도 있다. 그림책의 저자이자 과천써밋푸르지오 현장 김종민 과장의 아내 수아현씨는 딸을 키우며 얻은 영감으로 <새하얀 고양이>를 만들었다. 쓰고 그린 책으로 <똑딱똑딱 할머니>, <흥칫뿡>, 캐나다에서 출간된 <WHAT SHALL WE DO?>가 있다.

수아현 지음 | 시공주니어 펴냄 | 13,000원